

 **금주의 말씀**

속12장 6절 ~9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요즘 날씨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다. 점점 세상은 병들어가고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될 것 같다. 재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스가랴 12장의 내용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하늘을 펴서,

땅의 터를 새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다. 창조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 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라" 그날에 고난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하신다.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며,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요엘 3:10 절에 '악한 자도 이르기라 나는 강하다 함지이다.' 고전: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잠3:6절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상25: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쏘아대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레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태아를 양

수를 통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싸게 속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고난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생명싸게로 싸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첫째로, 다윗같이 보호하시겠다 하신다(8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한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날마다 주격을 당하고 도망자로 살았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담대히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

고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 (사 43: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 43: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천사는 한 마리로 앞장서서 섬기는 영이다. 미가엘 천사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는 천사이다. 기브렐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는 천사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일을 한다. 다나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단 6: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옵나' 베드로도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신다. 섬기는 영으로 보내어 주신다. (히 1:14절) '모든 천사들은 우리의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이 주수 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때로는 전쟁에 강한 군사로 찬양하는 자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지금도 보냄을 받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재난과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다윗같이 악한 자를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신다. 또한, 하나님같이 우리들을 창조 역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실 것이다. 천사같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써 주실 것이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01. 율법의 역할(롬7:7~14)

골은 자기 있어야 구부러진 걸 발견하고, 거울이 있어야 우리 얼굴의 흠과 허물을 알 수 있듯이 회개에 꼭 필요하고 화복과 사화에 필요한 죄에 대한 지식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율법에 비취 비교해 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 이처럼 율법의 역할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롬 3:20의 말씀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

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길을 찾게 해준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의 지표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은 후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경건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바울은 특별히 율법에 의해서 탐심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범학살성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했다"(갈3:24)는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한국조각학회 회장 겸 대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과 종교분리의 역사적 의미'
인류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권력의 정당성과 개인의 자유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고대의 제정정치 사회부터 중세의 신성 정치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합은 자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의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역사적 반성 속에서 피어난 결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종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체제이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1789년 9월 3일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독립을 인정받았다. 이후 미국은 1791년 12월 15일 제정된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를 통해 언론, 출판, 집회, 정당의 자유와 함께 종교분리 원칙을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나 정부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 헌법적 장치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권

력에 의한 양심의 침해를 막고자 했던 고봉스러운 역사적 경험의 결실이었다.

종교분리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신성체제와 부패》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황후인 박해를 견뎌낸 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공인되고 이어 국교가 되었다. 그러나 박해받던 교회가 정치권력과 결합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신성국가 체제가 구축되었고, 이는 교리와 제도의 부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권력화된 교회는 비판 세력을 이단으로 몰아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성경의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리적 왜곡을 일삼았다.

《종교개혁과 개신교 내부의 분열》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는 위대한 영적 회복 운동이었다. 그

《7인적 또는 분파적 차원의 정교분리 주장》 재침례교도(Anabaptists)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역사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진적으로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주장하고 실천한 사람들이다.

부터나 칼뱅 같은 주류 종교 개혁자들이 국가 권력(시의회나 제후)과 연계하여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국가교회(Magisterial Reformation)' 모델을 취한 반면, 재침례교도들은 이를 성경적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로저 윌리엄스와 미국 연방정부의 정교분리 원칙》 이러한 신정국가적 폐단을 목격한 정교도 목사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는 시대를 앞서간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부가 세속 권력이 이단이나 종교적 오류를 처벌하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영혼의 영역과 세속 권력

종교전쟁(16)

리나 개신교 내 일부 교파 역시 국가 권력과의 결합이라는 한계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제네바의 칼뱅 체제》 제네바 등에서 추진된 신정정치적 시도는 신학적 순수성을 다지는 데 기여했으나, 자신과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분파나 개인에게 공공권을 통한 처벌과 압박을 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교도의 뉴잉글랜드 정착과 세일럼 마녀재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 뉴잉글랜드(마사추세츠 등)로 이주한 정교도들 또한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꿈꿨으나, 종교적 자의성에 의해 공정한 법적 절차 없이 주민을 처벌하는 오류를 범했다. 1692년에 발생한 세일럼 마녀재판(Salem Witch Trials)은 집단적 광기와 종교적 권력이 결합했을 때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잠식될지 보여주는 대표적 비극이다.

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정교도 지도자들은 이단이나 정통 교리와 다른 주장을 "영혼을 죽이는 범죄"로 보아 국가 권력(법과 형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저 윌리엄스는 "세상 국가 정부는 영혼이나 교리의 영역(이단, 신앙)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권한이 없다"며 이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로드아일랜드 식민지 설립》 로저 윌리엄스는 압박을 피해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를 세우고, 정치와 종교가 철저히 분리된 최초의 자유 구역을 만들었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으로의 결실》 로드아일랜드의 실험과 미국 건국의 조상들(Founding Fathers)의 철학이 결합하여 1791년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위클리프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 광주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 대지 67평, 건물 80평
-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 부속건물-중 이층 유아실 방송실
- 금액 : 7억 원
- ※ 리모델링/친환경 황토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중흥동 806-13(2층)
- 안보회관 건너편
- 면적 : 35평
- 금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010-7129-0281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군암로 159-1 / 2층
- 면적 : 40평
- 금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35만원
- ※ 권리가 있음 ※ 깨끗하고 위치도 좋음

010-8884-2988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 북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곡사거리
- 북광주유치원 옆-전철2호선 일곡사거리역 옆
- 면적 : 대지-72평, 건물-110평
- 1층-주목 30평, 교관 및 사무실 25평 (현상실용)
- (1층 주목과 교관 및 사무실 25평을 합쳐)
- 2층-교회 본당 40평
- 3층-유아실, 방송실 15평 (합계 55평)
- 금액 : 건물 및 교회비품 포함 4억 5천만 원

010-2518-8291

교회 매매

- 위치 : 북구 운암동 대자로 87 2층
- 면적 : 123.2㎡
- ※ 10평 10평 별도로 있음
- ※ 1층같은 2층(공간 넓고 자유로움)
- 금액 : 2억 원 ※ 살릴 가능
- ※ 성물 음향시설, 기타 생활용품 인수가능

010-8609-7224

교회 임대

- 위치 : 북향동사무소 맞은편 (목포엘림수양관)
- 면적 : 40평 (3층)
- 금액 : 보증금 3천만원 월44만원
- ※ 조정가능

010-5302-3389

교회 매매

- 위치 : 북구 청수년수원관 부근 3층
- 면적 : 대지 56평
- 1층 교회 2, 3층 주택
- 금액 : 6억 3천만원
- ※ 상구 일체 포함
- ※ 수리 후 건물 깨끗

010-8210-5005

교회 상가건물 매매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군암로 182번길(상가 4층)
- 면적 : 대지 62평, 건물 131평
- 1층-인테리어 사무실(수후 편의점, 카페 가능)
- 2층-교회 / 3층-조정 사무실 / 4층-사택
- 금액 : 8억(조정가능) ※ 교회비품무로 드림(현상실용)
- ※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목회사설, 타임증가능 ※ 주변에 아파트 단지 있음

010-4154-7945

교회 매매 및 임대

- 위치 : 송정동 아파트상가 (간지하 통풍 환기 잘됨)
- 면적 : 30평 예배당(주방겸 목양실)
- 금액 : 8천5백만원 / 임대 50만원 월35만원
- ※ 성물 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 ※ 엘리베이터, 교통주차 편리

010-5600-8890

교회 매매

- 위치 :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사랑하는교회)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 대지14평, 교회40평, 사택20평
- 금액 : 1억 4천만원
- ※ 상당 창고화장실
- ※ 성물과 지동차스택스1인승,집기포함

010-8355-9200